

공원에서 드론 배달에 샤와까지? 심수, ‘스마트 공원’ 조성에 박차



심수만공원에서 배달 드론의 착륙을 지켜보는 사람들 / 신화사

광동성 심수시의 공원 관광지가 한 층 더 ‘스마트’해지고 있다.

음력설 연휴 기간 심수의 여러 공원에는 음식을 배달하는 드론이 쉴 틈 없이 드나들었다. 이 밖에 곳곳에 배치된 셀프 커피·주스 머신, 셀프 샤와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공원에 스마트 설비가 속속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천원지성(千园之城, 1,000 개 공원 도시)’으로 불리는 심수는 최근 수년간 공원에 배달·배송 드론 등 스마트 기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해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융합된 공원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도 늘고 있다.

“드론 배달을 처음 해봤는데 주문후 20 여분 만에 밀크티(奶茶)가 도착

했어요. 얼음이 하나도 녹지 않았죠. 아주 편하더라고요.” 지난 2일 심수에서 명절을 보낸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찾은 필가산체육공원에서 드론 배달을 경험했다. 드론이 음식을 싣고 날아올 때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착륙대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이를 구경하다 참지 못하고 QR 코드를 스캔해 직접 체험에 나선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필가산체육공원 로션의 리룩 지점인 메이탄 드론 산업상성(深业上城) 리착륙장.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 오후 영업 종료 시간까지 직원 왕흥과 동료들은 음식을 포장하고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왕흥은 배송이 불편한 일부 공원 관광지에선 드론을 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마다 이곳의 드론 배달 주문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가산체육공원, 심수만공원 등 공원에는 10 여개의 드론 배송 로션이 마련돼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연휴 메이탄 드론의 단일 로션당 일일 주문량은 약 200 건에 달했다. 이는 관광지 착륙 지점에서 운영시간 동안 약 2 분에 한번씩 배달 드론이 착륙한다는 뜻이다. 인기 메뉴로는 밀크티, 주스, 치킨, 햄버거 등이 꼽혔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조녀사는 향밀공원에 설치된 카파커피머신 앞에서 원두커피를 구매했다. 60 초 정도 지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원두커피 한잔이 완성됐다.

“예전에는 공원에 물건을 파는 곳도 적었고 음력설 연휴에 영업하는 배달 매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만드는 커피와 갓 짜낸 오렌지주스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선택지가 많아져서 공원을 더 편하게 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조녀사의 설명이다.

심수 소재의 30 여개 공원에는 수백대에 이르는 셀프 커피머신이 설치돼 있다. 그중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커피 부스’는 ‘인공지능

(AI)+ 기계팔’ 모델을 통해 수십가지의 음료를 제조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계팔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며 커피를 만드는 진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심수 원박원(园博园)에서는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동그란 자물줄행 관광객가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L4 자율주행(지정 구역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해당 차량에는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차량의 착지식 유리과 천장을 통해 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심수에서 공원은 휴식의 공간을 넘어 ‘스마트 공원’의 발전을 이끄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 소비, 오락은 물론 스포츠, 레저에도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 헬스장·트랙외에 려화산공원 등에는 스마트 샤와실이 잇달아 마련됐다.

면적이 약 5.4 평방미터에 달하는 스마트 샤와실은 세면, 화장대, 선반, 탈의, 랭온수 샤와 등 기능을 아우르고 있다. 한 시민은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 후 5 월만 내면 샤와를 할 수 있어 개운한 상태로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신화넷



심수만공원에 설치된 무인 커피머신 앞에서 커피 등 음료를 선택하는 고객 / 신화사

제남 새봄 소비시장에 물고 온 새로운 바람

2월 6일 14시 성남왕사(城南往事) 제남 향릉광장점. 줄을 서서 기다리던 마지막 손님이 자리를 찾아 앉자 경리 진취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산동성 제남 천성로에 위치한 이 식당은 산동음식 특색 가게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음력설 연휴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하루 평균 테이블당 14 차례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어약룡문(鱼跃龙门)’이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긴 탕수잉어(糖醋鲤鱼)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하루에 잉어 200여마리가 팔립니다.” 진취는 식사 시간이면 사면팔방에서 온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각자 사투리가 뒤섞이면서 농후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성남왕사 향릉광장점은 산동 개서

상업그룹이 제남에 개설한 100 여개 음식점중 하나다. 개서 마케팅 총감 후명경은 선달그믐날 밤에는 빈 테이블을 보기조차 힘들었다며 음력설 기간 접대한 손님수는 작년 동기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적지 않은 음식점은 이미 정월대보름까지 예약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신(焕新)’은 올해 새봄 소비의 키워드로 되었다. 마찬가지로 천성로에 위치한 소년역구 슈퍼플레이스(旗舰店)는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 정책에 힘입어 각종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이 판매 고봉을 맞이했는데 그중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의 판매량이 동기 대비 두배로 증가되었다. “‘국가보조(国补)’가 있어 이번 설맞이 축제는 레년보다 더욱 번창하고 정책 인도하의 시장 활력이 충분히 과시되었습니다.” 점장 장상은 이렇게 말

했다.

1월 23일부터 제남은 여러가지 ‘보상교환판매’ 보조정책을 발표했는데 가전제품, 디지털제품, 자동차 등 여러 소비 분야와 관련, 새봄 소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

소비품은 ‘보상교환판매’, 소비업체는 ‘태구환신(蛻旧焕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근 5 억원을 투입하여 백화점 내부를 개조하고 선발경제, 체험식 소비 등 새로운 업태를 도입하여 소비 장면을 끊임없이 풍부히 했습니다.” 제남 향릉광장 총경리 류병부는 이차원 교향음악회 등 활동을 개최했는데 손님 류동과 판매가 뚜렷이 제고되었다면서 울 들어 피크셀은 동, MR(혼합현실) 몰입형 과학기술전도 많은 젊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열기가 뜨거운 명절 소비는 문화관

광시장에서도 체현되었다. 명절 분위기가 짙은 한차례 또 한차례의 새봄 문화관광 소비활동들이 제남의 여러 관광지와 상권에서 번갈아 상연되었다. 울겨울 제남은 “천(泉)이 제남에서” 겨울여행기 계열 활동을 출범, 10대 주제의 근 100 가지 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들은 로사(老舍) 선생 필하의 ‘제남의 겨울’을 깊이있게 느낄 수 있었다.

련일 제남 박물관공원은 풍경을 감상하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대명호 역시 시끌벅적했다. 천성토끼왕(泉城兔子王), 로제남전밀(老济南缠蜜), 무형문화재 당화(非遗唐画), 연도면소(软陶面塑)… 명호시장에는 전통 무형문화재로부터 창의 미식까지, 부동한 풍격과 특색의 ‘썸의 도시’의 맛을 전시하고 있어 적지 않은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농민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 소비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농촌 소비 활력이 융솟음치고 있다. 력사가 유구한 제남시 래무구 채리대장터는 복식, 꽃새, 채소, 과일, 애완동물 등 8대 기능구역으로 나뉘는데 고품기에는 수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장터의 제품은 더 이상 일용 백화, 야채와 과일, 우유, 차, 설탕, 그리고 화조, 서화, 희곡공연 등 ‘문화대식’에만 제한되지 않는바 클라우드 소개, 전자상거래 생방송 등 새로운 판매 형식도 흔히 볼 수 있다.

제남에서는 크고 작은 농촌시장이 ‘보물찾플레이스’(打卡地)로 떠오르며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산과 물을 끼고 있는 농가락, 어가락, 장원민박을 선택하고 있다. / 신화사

남부 5개 성 신규 발전설비중 신에너지 비중 80% 넘어

지난해 광둥, 광서, 운남, 귀주, 해남 등 5개 성의 신규 신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5,932 만키로와트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했다. 남방전력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남부에 위치한 상

술 5개 성의 신에너지 총설비용량은 1 억 9,200 만키로와트로 집계됐다. 그중 풍력발전설비는 6,028 만키로와트, 집중식 태양광과 분산식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각각 7,872 만키로와트, 4,313 만키로와트에 달했다. / 신화넷

란주신구 선전화산업 연간 생산액 억원 돌파

감숙성 란주신구 화훼산업기지. 실의 최저기온은 령하 10 도 이하로 떨어졌지만 화포 안은 훈훈하고 송이송이 장미가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다. 꽃을 따고 차에 실어나르고 포장을 분류하고… 로동자들은 쉴새 없이 돌아치고 있다.

평균 해발고가 1,900 메터에 달하는 란주신구는 기후가 차고 공기 습도가 낮아 전통농업 발전에 있어서 자연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기후 열세를 생산 우세로 바꾸는 ‘묘수’는 없을까? 온실 기술의 ‘추가’로 란주신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2018 년부터 란주신구는 장미꽃 재배를 위해 45 만평방메터의 스마트 온실을 륙속 투자 건설했다.” 란주신구 농업과학기술개발유한책임회사 리종준 부경리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으며 조명이 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배한 꽃은 병충해가 적고 쉽게 썩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스마트 온실에서 정밀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물·비료·가스·열 등의 자동적인 제어가 가능하기에 장미꽃이 적합한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리종준은 싱싱한 장미는 전천후, 전 계절 생산이 가능하며 무당 생산액은 전통 작물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란주신구의 선전화(鲜切花) 연간 생산량은 근 1 억가지에 달하고 생산액은 억원을 돌파했다.

기세 높은 생산에 이은 판로는?

란주신구 화훼산업기지는 전자상거래 생방송팀을 건설, 영상플래트홈에서 꽃을 팔고 있다.

“1 년여의 탐색 끝에 팀은 점차 ‘트래픽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책임자 리신은 현재 6명의 앵커가 매일 두차례 생방송을 진행하여 하루 평균 4 만여송이의 꽃을 팔고 있다고 표시했다. “휴일마다 생방송 차수를 늘이고 시간을 연장하면 평소의 5 배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재 기지의 생화 온라인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 분의 1 에 육박하고 있다.

생화는 썩기 쉽기에 물류가 원활해야만 제때에 소비자들에게 배달될 수 있다. “기지에는 화훼선진도유지창고, 가스조절창고, 저온랭장창고 등 창고저장배송시설이 건설되었다. 사용자가 첫날에 주문하면 이튿날 오전에 꽃을 따고 당일 오후에 발송

을 배지한다. 또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 오프라인 꽃집 + 공동 경영창고 + 전지창고’ 모델을 통해 48 시간 내에 국내 사용자에게 배달될 수 있다.”라고 구봉동은 소개했다.

란주 중전국제공항은 생화 운수 ‘록색통로’를 개통, 일본, 월남, 한국, 싱가포르 등 나라로의 화훼 판매에 노력하고 있다. 구봉동은 현재 항공운송 로션이 195 개에 달한다며 선전화 한송이가 생산기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기까지 빠르면 이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아름다운 장미는 마을 사람들의 ‘치부의 꽃’

채취공으로 4 년간 일한 진천진 원대촌 촌민 리수영(42 세)은 매달 6,000 여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리종준은 “기지에는 채취외에도 식물 보호, 포장, 제품 통제 등 여러 직종이 있다. 우리는 4 개의 산교육합(产教融合) 실습훈련기지를 건설하고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일련의 재배, 관리 보호, 가공에 능숙한 화훼재배원을 양성했다.”고 소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기업 + 취업공장 + 농가’ 모식을 통해 4,100 여명 농민들이 ‘꽃밭그릇’을 들었다.

진천단지 현대농업산업단지 화훼재배기지는 6 만그루의 아시아백합으로 높이 부실 정도였다. 기지 생산책임자 장군주는 “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한 백합종구(种球)로 꽃봉오리가 많고 화기(花期)가 길어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일 화종은 더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미외에도 란주신구는 작약, 백합, 튤립, 양도라지 등 생산액이 높고 효익이 좋은 화훼 품종을 도입하여 ‘기지 장미 + 절화배화(切花配花)’ 복합 발전 모식을 형성했다.

꽃을 매개로 란주신구는 현지 실정에 맞게 화훼관광, 과학보급, 연꽃 등 형식이 다양한 체험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란주신구 농림수무국 부국장 리빈은 계속하여 화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 지혜화 수준을 제고하며 화훼제품의 정밀가공을 추진하고 산업시사를 확장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 신화사

‘중경산’ 자동차, 음력설 기간 1,807 대 수출



2월 6일, 어취역에서 선적 대기중인 완성차.

2월 6일, 281 대의 ‘중경산’ 자동차를 실은 JSQ 형 렬차(자동차 운반용 화물렬차)가 중경 어취역을 출발했다. 중경철도물류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8 일간의 음력설 연휴 동안 중경 철도는 ‘중경산’ 자동차 총 5,743 대를 발송했으며 이중 완성차 수출은 1,807 대에 달한다. 음력설 기간 ‘중경산’ 완성차를 실은 렬차는 매일 어취역에서 출발, 룽해 신통로와 중국-유럽 화물렬차를 거

쳐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 향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4 년 중경시에서 수출한 완성차는 47 만 7,000 대에 달해 동기 대비 29.6% 증가하고 화물가치는 431 억 1,0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30% 증가되었다.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5 만 7,000 대로 동기 대비 115.3% 성장, 중경 대외무역 수출입의 중요한 성장점으로 되었다. / 신화넷



성남왕사 향릉광장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 신화사